





장애인 인권침해시례 1





전북 남운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 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 을 5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위 사진과같이 프로레슬링에서 볼법한 자세로 발목을 꺾는 자세, 또한 장애인들의 머리래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무자비하 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714180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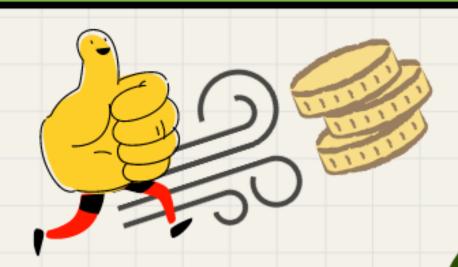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2



장애인 복지에 활용해야 할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복지법인은 장애인에게 할당된 수억원을 유용했다기 적발 되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용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해결방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1ST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수용 시설 감시 강화 2ND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용 시설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 확대, 지원금 유용등 장애 인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처벌특례법 제정 | 3RD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2014년 지적 장애인 노동 착취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엄벌을 요청하고 구속을 요청하였지만 전과후 가 달라지지 않았다. 법률은 많으나 장애인 인권침해는 나아지고 있 지 않다.

